

발이나 발목을 다쳤을 때 엑스레이가 필요할까요?

발과 발목
부상은
흔합니다.

얼마 전 발목을 다치셨다면 빠졌는지 부러졌는지 걱정되실 겁니다. 이 둘을 가려내기 어려울 때가 많고, 정확한 진단에는 엑스레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 염좌와 골절은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 통증, 특히 다친 발에 몸무게를 실을 때
- 눌렀을 때 아픔
- 부기
- 멍
-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음
- 발목이 불안정함
- 다칠 때 “뚝” 하는 느낌이나 소리

오타와 발목 규칙을 따르세요

1992년 이언 스틸 박사는 오타와 발목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발목이나 발을 다친 환자에게 언제 엑스레이를 찍을지 임상가가 판단하도록 돕는 간단한 지침입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목 엑스레이는 복사 부위(구역 A)에 통증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필요합니다.

1. B 부위를 누르면 아픔
2. C 부위를 누르면 아픔
3. 다친 직후와 진료실에서 모두 네 걸음을 걷지 못함

발 엑스레이는 중간발 부위(구역 D)에 통증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필요합니다.

1. E 부위를 누르면 아픔
2. F 부위를 누르면 아픔
3. 다친 직후와 진료실에서 모두 네 걸음을 걷지 못함



참고문헌

Heyworth J. (2003). Ottawa ankle rules for the injured ankle. BMJ (Clinical research ed.), 326(7386), 405-406.

<https://doi.org/10.1136/bmj.326.7386.405>

Stomp, F. G., McKnight, R. D., Greenberg, G. H., McDowell, I., Nair, R. C., Wells, G. A., Johns, C., & Worthington, J. R. (1994). Implementation of the Ottawa ankle rules. JAMA, 271(11), 827-832.